大自然과 人間의 관계

崔 光 烈

1. 地球自然의 危機

오늘날 地球의 자연계는 미·소의 핵무기가 이를 침해, 파괴하지 않아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의 반란에 의한 파괴와 아울러 인간의 환경공해에 의한 막대하고 무모한 처사로 이미 지구자연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경고를 75년경에 발표한 「한국자연론」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했었다. 다음에 새로운 자료에 의한 우주천체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얘기는 大地의 산성화에 의한 모든 부식화—흙과 하천과 생물체의 모든 산화현상 뿐만 아니고, 보다 대기권의 오존화 그밖의 여러 문제를 새삼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다와 육지만이 전부는 아니다. 지구의 표면에서 30km 내지 1백90km 상공에는 오존層, X線, 자외선, 우주선, 夜光雲, 嚴寒이 켜켜이 쌓여있는 未知層圈이 있다. 알몸의 지구를 大氣가 속옷처럼 감싸주고 그 바깥은 未知層圈으로 에워싸여 있다.

大氣 속에서 남쪽으로부터 몰려오는 습한 공기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막대한 潛熱을 방출한다. 미국의 어떤 기상학자가 계산해본즉 일정한 넓이에 쏟아진 25㎜의 비는 같은 넓이에 내리쬐는 3일분의 日射量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습한 공기는 이처럼 막대한 潛熱을 지니고 있으며 그 潛熱을 흩날리는 熱교환작업이 바로 對流이다.

對流를 일으키는 바람은 금방 약해지는가 하면 어느 틈에 강해지는 변덕을 부린다. 氣壓의 변덕때문이다. 大氣의 온도는 잠시도 오르지 않으니까 壓力도 늘 달라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압력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를 밀어내니 저절로 바람이 생긴다.

그러한 바람중에서도 재넘이(고개마루) 바람은 산기슭을 올라갈 때 水分을 떨어뜨리고 따뜻하게 말라서 골짜기로 몰아 부친다. 그것이 山岳風이며 지방에 따라서 각각 특색이 다르다. 스위스와 南독일의 재넘이 바람은 푄現象이라고 일컫고 아프리카에서 南유럽으로 불어오는 熱風은 시존코現象, 미국의 북부지방에서 겨울과 초봄에 불어오는 로키山脈의 치누크바람등은 습기와 열기 그리고 氣温, 氣壓변화 따위가 사람의 몸에 늘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얘기는 대자연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미 지구촌의 여러 지역과 천체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인간들은 어느 지역,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광대한 러시아지역이든 인구밀도가 세계최상위인 좁은 한반도이든 하등의 차이없이 환경파괴와 지구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산업발전의 개발계획은 가면 갈수록 인간을 자승자박하고 있다는 인식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 글의 서두에 적어 참고하기를 바란다.

2. 德裕山行의 옛 情

75년 10월4일 나는 德裕山엘 갔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3시 열차로 大田엘 가서 다시 茂朱 九千洞으로 向하였다.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오늘 오전 중에도 하늘에는 비가 뿌리고 회색이 짙게 흐려 보여서 원거리 등산을 꽤 망설였다.

오후 2시가 되어 하늘이 맑기를 바라면서 산악인 정태윤형등 일행 4名은 서울 역전에 모여 다소는 불안한 출발을 했다. 다행히 오후 5시 大田에 닿았을 때는 날은 완전히 개였고 온화한 날씨였다. 茂朱까지 沃川, 永同을 거쳐서 山谷과 들의 街路樹 포플러 사이를 장시간 길길이 누비고 버스에 실려 두시간, 7시가 지나서 무주에 도착했다. 여기서는 이미 九千洞까지의 버스차편은 없었다. 부득이 택시合乘을 하고 九千洞까지 꼭 한시간을 어둠 속을 다시 달려갔기 때문에 아무런 景觀도 볼 수가 없었다.

九千洞 旅館村은 그야말로 觀光地의 不夜城이었다. 비탈진 곳에 들어서 있는 10여채의 여관은 모두 만원이며, 술집도 노래와 춤으로 법석댔다. 휘황한 전기불 탓으로 나는 이곳이 바로 九千洞溪谷의 初入인 것을 분간할 수 있었을 뿐 山間의 차거운 냉기를 느끼며 총총한 별과 검은 山숲을 볼 뿐이었다.

덕유산은 山자체로는 山勢나 山岳美의 특수한 볼품은 거의 없다. 白蓮寺에서 頂上까지의 두시간 남짓한 가파른 길. 우거진 樹木 그리고 頂上 一帶의 밋밋한 풀밭과 철죽, 山竹등 관목들 그리고 朱木과 枯死木들의 奇怪한 형상의 모습과 벌써 丹楓든 나무의 朱紅과 眞紅 그리고 黃葉이 古松의 진초록과 연초록의 綠色바다 위에 타는듯한 色調의 변화를 보여주는 황홀한 景觀—이러한 것은 실상 어떤 高山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다.

다만 1594m의 이날 頂上 날씨는 비가 개인 뒤라 韓國의 가을을 상징하는 끝없는 天空의 코발트빛 아래 펼쳐지는 山과 또 山峰의 물결이 土地 위에 안개어린 地平까지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것은 큰 수확이 아닐수 없었다.

南쪽으로 智異山이 橫一字로 白雲山 저쪽에 노고단에서 청왕봉까지 쭉 뻗은 모습과 1백여리 밖의 雲霧사이의 수많은 山이 시야에 바라다 볼수 있었고 東쪽으로는 역시 수도산과 가야산의 突厥한 頂上이 보였다. 1천m전후의 四方 山들은 거의가 이러한 雲霧사이에 連峯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의 地上에는 黃土빛 들과 작은 마을의 모습이 가까이 내려다 보일뿐 視界는 모두 아삼한 山과 짙푸른 하늘 그리고 바람 뿐이다. 오직 西쪽은 湖南平野가 地上에서 피어오른 暗霧때문에 가리워 있어 西海를 볼 수 가 없었다.

1천6백m쯤 山위에 서도 한국의 마을과 도시는 低山地帶사이의 盆地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새삼스럽다. 하여 湖南平野가 地平이든 水平이든 확 트여있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德裕山은 南德裕山(1508)을 50리 산간에 두고 동쪽과 北쪽의 山이 어우러 어깨동무를 한 U字型으로 九千洞계곡이 北向으로 흐르고 있어 여러 山줄기에서 흐르는 물로 羅濟通門까지의 70리를 폭이 넓고 깊이가 얕은 완만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 덕유산 일대는 山의 群落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傾動山型이 아니고 丘陵型이면서 老年期地形이 돼서 山 속에 木化石이 있다든가 鑛石종류가 깔려 있으나 溪谷은 한결같이 오래 水壓에 닳은 石灰岩의 부드러운 円型構造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감을 주고 있다.

九千洞 계곡은 그 유연한 全長의 曲線이 완만한 경사로 인하여 곳곳에 수많은 潭沼를 지니고 또 大·小 바위의 形狀이 하나같이 교묘하게 생김과 아울러 大岩盤은 땅속에서 솟은듯 그대로가 谷間의 地勢를 이루고 있고 또 落動한 잡석이 굴러있지 않아서 그 配置의 절묘한 구조가 군데군데 굴곡을 이루고 푸른 苔蘇가 끼인 바위위의 홈을 물이 흐르는 離駐台나 비판담은 과연 계곡미의 절경이라 해도 좋았다. 물론 이 계곡에는 한시간 남짓한 5km의 짧은 편이지만 계곡 양쪽에 꽉 들어서 樹林으로 하여 日光이 계곡에 비치지 않는 遮斷된 계곡이어서 한층 幽邃한 맛을 풍겨주고 있으나 九千洞 계곡의 결정적 미흡감은 九折羊腸의 기관이 없고 또 한가지는 千刀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같은 호탕한 폭포 하나 없음이 유감이다.

그것은 이런 山形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山을 찾을려면 山形과 그 山의 구조, 형태가 역시

문제되는 것도 여기서만 느끼는 상식은 아니다.

九千洞은 여관촌에서 三公里를 지나서 계속 하강 코오스로 70리의 길이 점차 평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三公里만해도 높은 山谷사이의 평지요 여관촌은 해발 3백m는 되리라 짐작된다. 해서 여관촌에서 頂上까지 3시간반으로 走破되었다.

그날 하산을 한 일행은 여관촌에서 밤에 술로 피로를 풀고, 이튿날은 역시 온 길을 되돌아 나제통문을 거쳐 영동읍내를 가로질러 옥천으로 해서 서울로 왔다. 다만 전날 입산할 때는 밤이라 보지못한 나제통문에서 그 옛날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대한 새삼스런 역사의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영동읍내의 시가도로에 감나무의 감을 보거나 이곳 누른 수확물을 바라보았다.

3.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의 異變

A. 忠北永同지역의 山情水情

91년 8월10일. 나는 한국농민문학회의 고문자격으로 동협회가 주최하는 하계(夏季)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침 10시에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일행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세미나장소인 충북 永同으로 向했다. 당일은 토요일인데도 오전부터 다소 붐비는 편이었으나 경부고속도로에서 옥천(沃川)으로 굽어들어 옥천시가지의 장날풍경을 보면서 도중의 농촌을 관망했다. 더러는 4,5십년전의 길가 폐옥이 그대로 방치되어 낡은 양철지붕이 옛집임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이곳 옥천평야는 대체로 여름 정경이 그렇게 척박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한시간만에 영동

▲영국사 산중폭포에 선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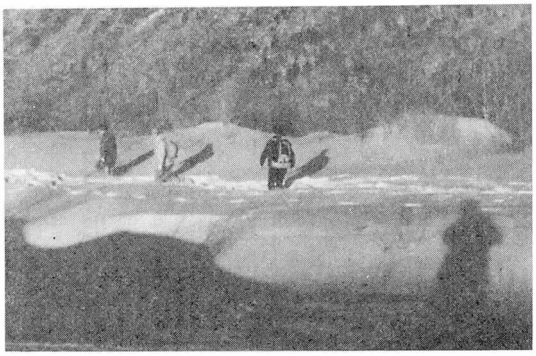
군 양산면의 송호리에 있는 송호관광호텔에 도착했다. 이 주변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있고, 무주구천동 계곡에서 흘러오는 금강상류의 강폭은 50m정도는 됨직한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변에 송림지대가 형성돼 있어서 서울 등 각지에서 주로 젊은 층의 피서객들이 야영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었다. 한편 이곳에는 이른바 양산팔경이라고 해서 서북쪽에 있는 영국사는 유래가 오래되는 A.D. 608년경의 신라 圓光법사에 의한 창건이라고 하지만 사찰보다도 그 앞뜰의 은행나무가 오히려 수백년의 위풍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곳 미륵산을 오르는 초입의 계곡이 오히려 더 묘미가 있었다. 이 영국사는 신라의 호국사찰로 부도며, 3층석탑 등의 유물이 있으며 바로 이곳이 신라와 백제의 서변과 동변의 접경지대로 군사대결의 유서가 현저하게 남아 있는 곳이다. 그 한 예가 김흠운과 양삼가의 현존기록은 신라말기의 양국사정을 잘 알려주고 있다. 그밖에 이 지역은 천태산과 강변의 강선대 풍경과 낙조 그리고 추풍령과 황간계곡의 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필자가 15년전에 주마간산격으로 지나쳐 보았을 때와는 월등 우수한 山勢地利가 있음에 오늘의 지역사회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한결 발전하고 있고 자연경관에 관심은 높아짐을 보았다. 특히 이곳 지방 문학인들의 활동은 작고한 李永純씨를 비롯 농민문학 유승규 그리고 농민문학협회장 이동희및 문협영동지부장 장지성시인의 영향이 많았다.

B. 太白山脈과 太白市의 인상기

89년 정초3일의 연휴를 이용하여 丁사장, K교수, 이사장, K시인 등 5,6명은 고원산악회의 관광멤버에 끼여 태백산을 탐방키로 했다. 일행은 정월1일의 11시에 동대문 터미날을 출발 영월에서 태백시로 향하는 상향코스를 진입하여 해발 6백m의 태백시에 도착한게 오후 네시경이었다. 태백시는 경사진 지형에 자리잡고 있으나 철도역의 아랫쪽 일대가 상가및 유흥지구이다. 이곳에는 3층이하의 여관과 두개의 큰 골목에 식당, 술집 등이 밀집해 있다. 이곳 인구수 6만이 4만이니 해서 유동적이며 탄광의 경기여하에 따라 노동분쟁과 상가 경기에 인구도 항상 유동적인 곳이다.

이러한 광산도시, 황지탄광, 함백탄광, 도계탄광, 장성탄광등 수많은 주위의 석탄 분진이 공기와 수질의 오염을 가져온다는 도시에서도 유흥가는 마냥 막가는 술판인지 제법 흥청거렸다.

일행은 저녁겸에 가벼운 일배를 하고 모두 일찍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은 다시 버스를 타고 한시간이나 북쪽으로 우회하여 북쪽으로 靑玉, 두타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삼척으로 넘어가는 죽치령 고개에서 태백산맥의 능선으로 일행은 등산을 시작하여 계속 5시간 가량을 황량한 겨울 태백산맥의 여러 산봉을 오르내렸다. 이곳 산세는 동해의 푸른 바다를 멀리 보면서 때로 동쪽으로 천인절벽의 7,8백이나 되는 낭떠러지가 발아래 내려다 보이고, 그 곳에서는 최근에 발견된 삼척인근의 동굴이 두어곳이나 있는 곳이었다.



▲ 태백산 눈길

이 산맥은 위도 37도선의 남쪽 응봉산(1267m)에서 서남방향으로 산맥이 이어지면서 태백시의 서남쪽에 주봉 태백산(1546m)과 아울러 함백산이 거의 같은 높이로 솟아 있고, 계속 소백산맥으로 이어진다.

우리 일행은 응봉산에서 일단 동서로 길이 난 높은 고개에서 하산을 시작하여, 예수교의 기도원을 지나 메마른 큰 하천을 가로질러 고토리의 국민학교 앞에서 다시 대기하던 버스를 타고 태백시로 돌아왔다. 도중에 우리는 이러한 오지의 산맥 후미진 곳에서 산지를 개발하느라 산맥을 갈아 뭉개고 있는 곳을 한군데 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태백산맥의 골짜기나 산세도 능선도 하등의 경관적인 묘미가 없는 것은 제대로 생긴 계곡이 없고 동쪽은 천인절벽이요, 서쪽은 밋밋한 경사진 산세라 오직 능선의 갈대와 잡목들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뿐이었다. 한마디로 광산산맥이라는 말 그대로 윤택이 없는 지대였다.

이날 밤 일행은 여관 앞의 식당에서 피로도 풀겸 참으로 모두 유쾌한 통음을 하고, 귀로에 고씨동굴을 속속들이 둘러보았다.

이 동굴에는 15년전에도 와보았으나 석회암동굴의 온갖 美女나 동물의 형상은 자연조형의 조각품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조형미학적 평가도 한번쯤은 시도되어야 하겠고 동굴내부의 수로(水路)나 굴곡이 심한 구조와 분위기는 한번쯤 둘러볼만했다.

끝으로 최근 우리나라와 자연과 국토는 이제 어떤 곳을 막론하고 너무나 개발이 촉진되어 지리와 생산물이 이용가치가 극도로 발달하여 오히려 역증이날 만큼 인간공해가 자연침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筆者 : 本會會員 · 文學評論家**)

實踐人間學

어떤 人間으로 살 것인가

筆者 : 李賢宰(한국국립공원협회 이사)

初版 91.10.20 發刊 · 全國書店配布中

세광종합인쇄 출판부刊 값 3,000원

鐵道放送(R.S.B) 大田世界博覽弘報 有感

京釜線을 비롯한 湖南線등 모든 列車가 大田驛을 通過할 무렵에는 列車放送에선 어김없이 「'93年 大田에서 개최되는 "大田世界博覽會"가 成功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망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主催側에서 좀더 "어필"되고 外國人들에게도 깊은 印象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짤막한 象徵的인 音樂도 만들어 각급 放送기관의 협조를 바랐으면 싶었다. (R)